

대구 주보

성령 강림 대축일 2017. 6. 4.(가해) 제2054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성령을 받아 우리 삶이 뜨거워지고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기 위해 고독하고, 침묵하며, 기도에 머물러야겠습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사도 2,1-11 **제2독서** 1코린 12,3㉔-7.12-13 **복음** 요한 20,19-23.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활동하시도록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 교구 총대리



찬미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때에 성령을 받았고,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과 성자 하느님께서 다시 성부 하느님께 돌려드리시는 사랑이 뭉쳐져서 되신 새로운 위격의 하느님이십니다.

비유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이를 잉태하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와 다른 인격이고 어머니와 다른 인격이 되어 새롭고 독립적인 인격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이 주고받는 사랑이 새롭고 독립적인 위격의 하느님이 되시는데, 성부 하느님과도 다른 위격, 성자 하느님과도 다른 위격인 성령 하느님이 되십니다. 이렇듯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느님께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위격이 되신 성령을 우리는 세례 때와 견진 때에 더욱 충만히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갚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의 첫 결과는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자격도 없던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요한 20,22-23)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 죄를 용서 받았고 구원의 길로 초대 받은 우리는,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주님의 기도 구절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 고백과 사랑의 실천은 성령에 힘입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궁전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비추심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 아니라 성령을 억압하고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마태 16,24 참조). “우리가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36항 참조)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립시다. 아멘. **✠**

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섭시다!

하느님은 이 땅의 백성에게 사계절 뚜렷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귀중한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남용하고 훼손하고 멸종시켜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약동하던 생명의 기운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고갈시켜왔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던 4대강 토건사업은 아름다운 우리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동부에 밀집한 산업지대의 영향뿐만 아니라 충남 당진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의 하늘과 땅과 물이 전부 오염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11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14개의 핵발전소가 근거리 밀집한 경주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붕괴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근거 없는 인식에 안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안일한 안전 불감증과 중대한 결함 중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재앙의 범위가 얼마나 위중할지 참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사회와 생태계가 겪

을 고통에 대해 경고하며, 지금도 선의를 가진 시민들과 연대하여, 4대강의 재자연화와 탈핵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 탈피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67항 참조).

새 정부는 이미 4대강의 복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의 자체와 규모 축소, 그리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단계적인 탈핵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 로드맵이 신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어우러져서 존중하고 나누며 살 때 비로소 복을 누릴 수 있고,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이 발전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도 인간의 품위와 권리를 향유하고, 자연계의 미물들도 파괴와 멸종의 위협에서 벗어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또한 신앙인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태계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아파게 경험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거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 선한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모두 의로운 행동에 함께 나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방인 사제양성의 요람, 성 유스티노 신학교

대구 도심 반월당에서 남산동 인쇄골목을 지나 대구대교구청으로 향하다 보면 대구 경북의 사제 양성 교육기관인 대구관구 대신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을 만나게 됩니다. 교정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벽돌의 학교 건물에 둘러싸인 고풍스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 눈에 띄는데, 바로 이곳의 전신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3호)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성소를 지켜온 못자리로 교구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성 유스티노 신학교는 1914년에 개교한 한국의 두 번째 신학교이자 교구 최초의 신학교로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11년 대구대목구가 설립되면서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신 드망즈 주교님은 주교관 건축, 신학교 설립, 주교좌성당 증축을 이루어 주십사 루르드 성모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신학교 설립은 교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서상돈 회장이 기증한 부지에 주교관과 함께 신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세계 각지에 한국인 사제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2년 11월 익명의 기부자가 성 유스티노를 신학교의 주보성인으로 모셔주기를 원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학교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기부자의 요청대로 신학교는 유스티노 성인을 주보로 모셨고, '성 유스티노 신학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14년 10월 3일, 59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개학식을 열었고 1918년에는 성 유스티노 신학교 출신의 첫 사제로 주재용 바오로 신부님(제4대 교구장)이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구대교구의 제6대 교구장을 역임한 최덕홍 주교님과 제7대 교구장을 역임한 서정길 대주교님을 비롯해 67명의 사제들을 배출하면서 성 유스티노 신학교는 사제 양성 교육기관으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3월 11일, 일제에 의해 신학교 건물이 일본군 육군병원으로 징발되면서 신학교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강제 폐교되었습니다. 그 후 37년이 지난 1982년에야 '선목신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1994년에는 효성여자대학교와 통합하면서 지금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인 대구관구 대신학원이 되었습니다.

1946년 당시 폐교 상태에 있던 신학교는 대건초급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대건중고등학교 교사로 사용되다가 1991년 앞산 밑 삼정골에 있던 선목신학대학이 원적지인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성당을 포함한 중앙 일부만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당은 1915년 드망즈 주교가 축성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구대교구는 지난 2014년 5월 30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존의 성 유스티노 신학교 건물 내부를 재정비해 유스티노홀(건축관), 드망즈홀(설립자관), 앓숨홀(문서관), 옴니아홀(100주년관) 등 4개 홀로 구성된 '성 유스티노 신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성 유스티노 신학교 설립 과정과 초대 대구대목구장으로 신학교를 설립한 드망즈 주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발자취와 한국교회 안에서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성품성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하느님께 제사를 거행하고(사제직), 하느님 백성을 돌보며(왕직),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예언자직)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직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자신들의 후계자(주교)와 그 협력자(사제) 그리고 그들을 도와 줄 봉사자(부제)를 선발하여 기도와 안수로 직무를 수여했습니다(사도 6,3-6 참조). 이러한 직무는 대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필요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사를 ‘성품성사(聖品聖事)’라고 합니다. 성품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목자인 성직자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이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고유의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을 성직자의 직무 사제직이라 하는데 성품성사를 통해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사를 집행하고 사목하는 세 가지의 임무를 맡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가까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

는 세례 받은 남자에게만 주교가 성품성사를 줍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히브 5,4)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품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성소)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응답한 이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성직 사제단의 일원이 되고 영적 아버지(신부·神父)로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며 봉사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도록 양성됩니다.

성품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가지 품계가 있는데 모두 ‘서품(敍品)’이라고 하는 성사적 행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품성사(神品聖事)’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신품(神品)이란 단어가 사제인 신부품만을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교, 신부, 부제의 세 등급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말인 성품성사로 바꾸었습니다.

성품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한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견진의 경우와 같이 성품성사도 영적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품으로 새겨진 인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필요**



5.28(일) _ 지곡본당 견진성사(16시)
6. 1(목) _ 흠커밍데이 미사
(11시 30분, 대신학원 대강당)



5.18(목)~6.4(일) _ 미국 살렘·볼리비아
사목방문

교구 및 기관 행사

6.5(월) _ 새복음화 통합(사목)체제 피정(9일까지, 한티피정의집)
6.6(화) _ 레지오마리아 60주년(15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6.11(일) _ 틴스타 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10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결정은 어떤이의 마지막 희망이며,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전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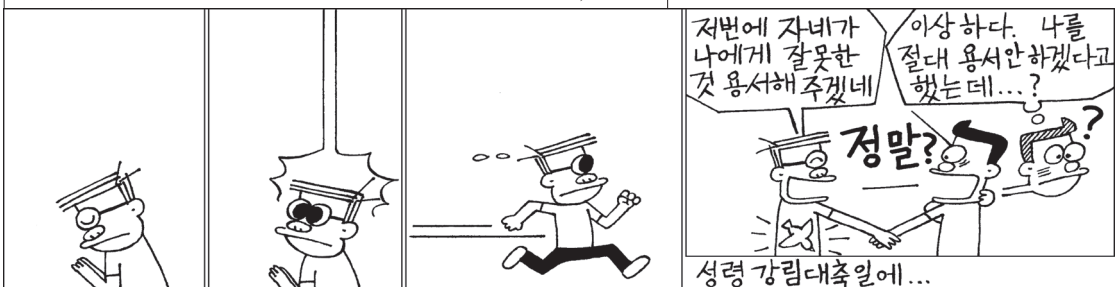
문의: 천주교대구대교구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070)4800-3005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사에 앞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요한 20,23)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5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6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6월 6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기간: 6.9(금)~11(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대상: 선교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6.10(토) 16:00

장소: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주제: 부제님들 나눔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fiat 성소 모임

일시: 6.11(일) 14:00

장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과천 본원

문의: (010)8920-9423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6.20(화) 10:30~21(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6.13~16 / 6.19~21 / 7.1~3

7.19~22 / 7.25~27 / 7.30~8.1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 독서 모임

일시: 월 1회, 화 19:00~21: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대상: 청년 누구나

문의: 김스페란자 수녀, (010)2503-5185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6.9(금) 17:30~11(일)

4박 5일: 6.12(월) 14:00~16(금)

8박 9일: 6.12(월) 14:00~20(화)

에니어그램: 6.8(목) 15:00~10(토)

문의: (031)946-2337~8

대구가톨릭치매센타 입소 어르신 모집

내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일: 6.24(토), 7.22(토), 7.29(토)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제50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4~8.14 영국·아일랜드

대·일반: 6.25~8.6 아일랜드

세계 학생들과 연수, 다양한 경험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40차 이스라엘 순례

기간: 7.15(토)~23(일) 8박 9일

문의: (010)5607-2046

주관: 이스라엘성지한국대표부

(프란치스코회) / www.terrasanta.kr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토)~15(금)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메주고리에)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780-0832 / www.ct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낙지장어
낙지철판복음 / 연포탕
산아나고석쇠구이 / 장어매운탕
40인 단체방 어린이놀이방 완비
T.053)941-7008 정창훈(안드레아)
신암동 대구공고 네거리

전인병원
병원장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문의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암수술 후·암 재활도 전인병원
일반 검진 일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정 병원
진료 외과, 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과, 한방내과, 침구과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피부 질환 아토피 | 알레르기 | 시아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미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성담역 3번출구 T.053) 651-88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정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의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터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 7)
말씀을 기억합니다.
품격순례 해외여행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

행사 | 모임

2017년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6.17(토) 14: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루가관
7층 대강당(대명동) / 신청비: 없음
대상: 성서모임별 학생, 본당참가 희망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기간: 7.5(수)~6(목),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선착순 60명)
마감: 6.25(일) / 피정비: 6만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6월 함께 꿈 미사

일시: 6.21(수) 19:30, 삼덕성당
주제: 함께 사는 세상, 공유경제
강사: 포콜라레 공동체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동인성당 바자회

일시: 6.17(토) 10:00~18:00
6.18(일) 10:30~17:30
내용: 물품 판매, 먹거리 장터,
행운권 추첨 / 문의: 422-6290

교육 | 모집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아간)

기간: 6.15~7.13(매주 목, 19:00~22: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010)6499-3114

6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17(토) 10:00~12:00, 대가대
신학대학(남산동) / 주제: '고요한 아침
의 나라에서'를 통해 보는 100년 전 한국
강사: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 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제1교리실
강사: 6월_마진우(요셉)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가대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 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 과정
마감: 6.24(토) / 문의: 660-5554~7
<http://conedu.cu.ac.kr>

포콜라레 하루 마리아폴리

일시: 6.6(화) 13:30~17:00 미사로 마침
장소: 교구청 다동 강당
주제: 말씀을 사는 기쁨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 회비: 3천원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채용 | 안내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채용

기간: 6.5(월)~15(목)
서류: 본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대구정신병원, 630-3000~1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효경, 박세호(라파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7월 30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포럼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보청기

김은연(세실리아) 최준우(미카엘)

053)421-8588 (섬유회관 맞은편)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치질수술 / 내시경 (위·대장) / 전 강 검 진

따! 좋은 병원

늘 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아토피 · 예민피부 특별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크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주 마티아 010-2624-0322

경산조폐공사 정문 앞